

주안예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11

Nov.-Dec. 2013
Vol.1 No.3

- 2014 사역 박람회
- 행사 / 취임예배
- 추수감사주일 찬양
- 교육 / 교역자 소개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e-mail: iccc.office1@gmail.com | web: www.in-christcc.org



발렌시아교구 금요찬양



주안에 일꾼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 사무장로 인수집사 시무권사 119명 취임예배

11월 17일 오후 4시 벨리채플에서 최혁 목사의 인도로 주안예교회 사무장로, 인수집사, 시무권사의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창수 목사(벨리 원로장로회 총무)의 기도 이어 최혁 목사는 설교에서 ‘다스리는 자’(로마서 12:8)의 제목으로 다스리는 자는 첫째, 앞에 선다는 의미로 본을 보이다는 뜻이 있으며 본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정표의 의미가 있다. 둘째, 지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리능력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셋째,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함을 뜻하는 것이다. 넷째, 돌본다는 의미로 관심, 물질, 시간을 드러 돌아보는 것을 뜻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다.

다음 순서로 서약식, 임직패 전달, 악수례, 취임에 이어 안유은 권사의 임직식과 안동윤 인수집사의 인수식과 함께 사무장로 14명, 인수집사



■ 사무장로 취임선서

40명, 시무권사 65명의 공포, 권면의 말씀 및 축사의 순서가 있었다.

권면 및 축사는 고두선 목사(벨리 원로장로회 회장)가 ‘선한 청지기’(베드로전서 4:7~9)를 주

제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기념품 증정, 감사, 축도의 순서로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 인수집사



■ 시무권사



30여개 사역국 열띤 홍보, 초과 접수 성과

■ 2014년 사역박람회

2014년의 각 사역을 담당할 리더들이 정해지고 이어 사역국에서 봉사하게 될 성도들의 지원과 함께 사역국의 구성을 위하여 11월 10, 17일 2주 주일에 걸쳐 사역박람회가 진행되었다. 세리토스, 벨리 채플 모두 사역국별 홍보부스가 설치되어 음식,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사역을 안내하고 소개하며 지원 신청을 받았다. 두 채플 모두 즐겁고 활발하게 사역박람회가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행사였다. 일부 사역국은 첫 주에 예정 인원이 초과하여 접수를 마감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으며 많은 성도들이 사역국에 참여하여 봉사하기로 지원한 만큼 새해의 각 사역국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역국은 벨리와 세리토스 채플이 함께 사역하는 사역국으로 전산국, 문서국, 홍보국, 선교국, 찬양팀, 재정국, 법무팀, 차량국, 한어청년부 등 9개 사역국이 있고, 각 채플별 사역국으로 벨리 채플은 건물시설관리국, 주차관리국, 조경관리국, 교육 1국, 교육 2국, EM, 예배국, 미디어국, 새가족국, 기도국, 봉사국, 살롬성가대, 임마누엘성가대, 사랑성가대, 의료국, 재정팀, 경조구제국, 체육국, 전도국, 한국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리토스 채플은 시설관리국, 셋업팀, 주차관리국, 교육 1국, 교육 2국,



재정팀, 예배국, 미디어국, 새가족팀, 봉사국, 2부성가대, 의료국, 경조구제국, 체육국, 기도국, 전도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벨리 채플의 사역박람회를 담당한 라태한 장로는 “사역박람회를 통하여 사역국이 활성화되고 사역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 기쁘다. 사역국마다 의욕적으로 부스를 운영하고 홍보하였으며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하여 초과인원으로 마감하는 등 성과가 좋았다. 새해에는 더욱 활발한 사역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성도들에게 사역을 소개하여 관심이 높아졌고, 자원하여 사역부서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성도들의 높은 호응과

열정을 사역으로 잘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사역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세리토스 채플의 사역박람회를 담당한 신희철 장로는 “사역국 리더들의 사역국별로 준비한 입체적 홍보 부스와 먹거리가 준비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한다. 짧은 기간의 준비임에도 성도들의 관심이 높았다. 사역박람회를 통하여 사역국간의 교재와 협력이 있었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기가 높은 만큼 새해의 사역활동도 기대된다. 사역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일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홍보하고 준비하면 더 좋은 박람회로 발전할 것이다.”라며 후에도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전했다.

2014년은 주안에교회 각 사역국의 구성과 사역이 실질적으로 구성되고 진행되는 첫 해이므로 매우 중요하고 각 사역국의 리더들은 계획과 준비를 잘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사역국 활동이 초기단계에 잘 계획되고 조직되면 다음 단계는 계획에 의거 효과적인 진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사역국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므로 주안에 교회가 새해에 힘있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세례 간증문

강문해 (한어청년부)

하나님 말씀에 내 눈을 고정

어릴 적 외할머니 따라 처음 교회 나간지 어 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해외봉사 등 주를 위한 사역의 타이틀 달고 달려 왔었지만 항상 칭찬과 박수를 받는 순간 하나님 대신 제가 앞장서서 가로 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목사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미 저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셨고 제 인생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렵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필요에 맞는 성경구절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자 제 눈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겠습니다.



감사의 시즌 사랑의 편지 동전 모으기 '훈훈'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 주안예교회는 목회부 주관으로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자하는 아름다운 의미를 담아 제 1회 사랑의 편지 보내기와 Rice Bowl 동전모으기 행사가 실시되었다. 교회 내에서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편지글로 나누고 그 편지를 받은 분은 다음 성도에게 나누며 릴레이 사랑의 편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는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요즈음처럼 편지글로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전하기가 시들해져 있는 이때에 매우 뜻 깊은 행사라 하겠다.

사랑의 편지 보내기가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사랑 나누기라면 Rice Bowl은 감사의 계절과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의 시야를 외부로 돌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으며, 고아들을 도움 목적으로 1달간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교회로 가지고 오고, 모아진 금액은 전액 고아들을 돕는 일에 쓰이는 보람 있는 행사였다.

감사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감사 편지쓰기와 Rice Bowl 사랑의 저금통 행사를 주관한 이 케이지 전도사는 "Internal한 의미로 감사와 사랑 나누기, External한 의미에서 하나님 주



신 복을 외부의 고아들과 나누고자하는 마음으로 Rice Bowl이 준비되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감사편지 쓰기와 Rice Bowl 행사가 올 해 처음 실시되는 행사인 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발전하리라 믿는다.

| 김경일 기자 |



양로병원에 담요 전달

밸리채플 제 2권사회(회장: 김정자)에서는 지난 10월 10일 헌팅턴양로병원을 찾아 사랑의 담요 50장을 전달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헌팅턴양로병원에는 우리교회에 출석하시던 세 분의 권사님들이 생활하고 계신다.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부르심에 순종, 감사와 기쁨”

주석희 전도사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설교시간에 지금 얼굴은 기억 못하지만 요셉이야기를 연속으로 3일 동안 계속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과 생애를 통해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유치부를 가르치기 시작 25년 넘게 유치부와 유년부에서 교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역을 하며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십자가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고 그날 저의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의 잘못된 모든 부분을 필름으로 보듯이 보여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통회, 자복했으며 이로 인해 청년부 모두가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소화가 안 되어 항상 가스 활명수를 매일 먹고 다녔는데 회개 한 후에 주님이 만나주셨고 위장병도 말끔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도원에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요셉처럼 영적인 꿈이 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께서 신학가길 원하셨고 함께 신학 가자고 청년부 여동생이 졸랐지만 그 때 바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보시는 목사님마다 신학을 권했지만 그래도 이리 저리 피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어느날 이리다간 하나님께 정말 혼나겠지 하면서도 양털 같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장을 여는 주안예교회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역하고 부지런히 성도님들을 섬기며 생명 다하는 날까지 맡겨진 일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주안예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그 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꿈 속에서 치유해 주신 예수님”

이미란 전도사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도 천국을 갈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찬송하면서 살았고, 서울에 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새벽기도회, 부흥회에 참석하였는데 1974년 여름 순복음교회 부흥회에서 성령체험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하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성경을 알고자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1980년 성일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심방, 교육 등 사역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빈부의 성도들을 구별하는 사람이 되어 갔고, 이로인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몸이 아파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요나와 같은 심정으로 한국을 떠나고자 이민을 결정하고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는데 두 달 만에 오른쪽 다리에 힘줄이 당겨서 걸음을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아픈 곳은 없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병원출입과 마사지를 병행했지만 낫지도 않고 점점 더 아팠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요나와 같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심도 주님이심을 깨닫고 다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1984년 5월 3일 꿈에 제가 다니던 병원 원주인 의사와 예수님이 나를 침대에 엮드리게 하고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셨는데 정확히 3일 후인 5월 6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에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에서 사역하며 부족한 저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하는 각오로 사역에 임하기 원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겸손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늘 길을 예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에 집중하는 주안예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소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흠여지면 전도하는 주안에 교회의 성도가 됩시다!

2014년 1월호 원고 모집

‘주안예’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아울러 새해 첫 호에 실을 특집 ‘주안에 가족들의 2014년 새해 꿈과 기도제목’을 기다립니다.

한글 200글자 내외 길이로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면 예쁘게 편집해 서로 격려하고 꿈을 나누는 계기를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종이에 적어 교회 사무실 ‘문서

사역국’ 메일박스에 넣어주시거나 이메일 (iccnnews123@gmail.com)로 보내주세요.





초등부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추수감사주일 찬양과 경배



임마누엘 성가대



한어청년부 바디워십팀



감사기도



사랑성가대 특송



사역박람회

일단 한 그릇 드시고... 사역팀 홍보



취임예배

“권사님, 선서 좀 엄숙하게 하셔야죠”



한어청년부 주안에만남

예쁜 미소 가득, 젊음은 아름다워라



하반기 세례식

“엄마, 아빠 웬 꽃다발이야”



할렐루야나잇

동심으로 돌아가서...

할로윈은 가라, 해피 할렐루야 나잇!



취재수첩 / 영적분별력 기르는 날로

지난 10월 31일 (다우니 체플)과 11월 1일(벨리 체플), 이틀에 걸쳐 교육부 주최로 할렐루야 나이트 행사가 열렸다. 죽은 자의 신령과 귀신을 달래는 날인 할로윈(Halloween)을 기념하는 대신, 악한 영들로부터 아이들과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교육부는 아이들을 위한 딱거리와 놀이를 준비했고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곳에서 뛰놀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했다. 본 행사는 “Set Apart”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교육부 담당 이케시 전도사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교회로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겠다는 신앙고백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약 170명의 아이들(다우니 70명 / 벨리 100명)이 이 행사에 참가했고,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도네이션 등으로 본 행사는 풍성하게 준비되었으며, 케시 전도사를 비롯하여 많은 스태프들이 동원되어 안전한 가운데 잘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시작되었다. 단순히 놀고 즐기는 행사로 끝내지 않기 위해 그 시간을 허락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했으며, 어린이 사역을 하는 김길현 목사가 게스트 스피커로 와서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 아이들은 행사장에 설치된 여러 부스를 돌아다니며 각종 활동 및 게임을 즐겼다. 특별히 페이스 페인팅과 풍선아트 부스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아이들을 섬겨주었다. 솜사탕과 팝콘, 카라멜 애플 등을 만드는 부스가 있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스, 아이들의 흥미를 끌만한 만들기 부스 등 다양한 재미거리들로 가득한 할렐루야 나이트였다. 준비되었던 부스 중에는 달란트 마켓도 있었는데, 약 두 달간 교육부에서 시행해 왔던 성경 읽기, 말씀 암송과 같은 신앙훈련을 통

해 모아왔던 달란트를 사용해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재미있는 물건들을 살 수 있는 부스였다. 특별히 성도들의 캔디 도네이션이 많아 아이들은 풍족한 가운데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행사를 섬겼던 유초등부 Jane교사는 “행사 내내 지루해하거나 속상해하는 아이 하나 없이 모두가 행사를 기쁨으로 즐겼다”고 말했다. 할로윈 대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교회 안에서 뛰놀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할로윈은 고대 아일랜드 지역에 거주하던 켈트족이 귀신들에게 몸을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 기리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수확의 계절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10월 31일이면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고 믿었고, 죽은 사람들의 혼령이 땅으로 내려와 농사를 망치고 사고를 일으키며 살아있는 자들의 몸을 빌려 거처를 마련한다고 믿었다. 켈트족은 이날, 육체를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 귀신분장을 하고 시끄럽게 마을을 돌아다니므로 기거할 육체를 찾아 해매는 혼령들을 달아나게 하는 의식을 했다. 세월이 점차 흐르면서 이 풍습이 변하여 귀신이나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하고 모이는 축제 형식의 이벤트로 바뀐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돕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체험과 활동, 예배를 드리려는 교육부의 노력에 성도들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김숙현 기자



학부모 소감 / 방공호 아닌 잔칫날

아이들과 같이 하다보면 그들의 맑고 투명한 영혼은 우리 어른들의 영혼을 가감 없이 투영한다는 생각을 종종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들만 보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걸러 보이는 우리에게 아이들은 보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를 내가 아닌 내 아이를 통해 발견할 때마다 긴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듯싶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즐기는 할로윈이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일까하는 단순함은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큰 아이가 곧 14살이 됩니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가 할로윈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을 찬양하는 이 명절을 도대체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포레 친구들은 이제 식상한 디즈니 캐릭터가 아닌 깜찍한 빨간고 작은 빨이 달린 머리띠에 끝이 화살촉 같은 꼬리가 달린 미니스커트를 입고 어느 소꿉물을 다녔을 겁니다.

우리는 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 모르고 그저 쉬운 길, 모두가 가는 그 길을 간 것뿐인데... 이렇게 되길 원했던 것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처구니없이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웃고 즐기자고 하는 놀이에 불과하다는 생각 없이 아이들을 대책 없이 세상문화에 노출시키고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았던 17년 전에는 할로윈이라는 게 그리 신경쓸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유학을 와서 처음 경험한 할로윈은 참으로 해괴망측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얼마간 한인 교회는 대책이 없는 듯 했습니다. 청년들은 별 거부반응 없이 발렌타인에 초코렛을 나누듯 그 날을 즐겼고 어린 아이들은 예쁜 공주나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는 날로 여겼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교회는 그저 trick or treat에 반응하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날로



교사일기 / 어린 영혼들을 건강하게

말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고 전 어린시절 등화관재를 추억하며 불을 끄고 숨죽여 그 밤이 지나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이 괴이한 명절이.. 왜 악하고 흉하고 잔인한 것으로 거리와 자신을 치장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러기를 몇 해 지나지 않아 드디어 크리스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로윈이 아닌 “홀리윈” 지금의 “할렐루야 나잇” 드디어 숨을 방공호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일찍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우리 예쁜 딸들도 공주로 한번쯤 치장을 하고 어디론가 갈 곳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잇은 그렇게 할로윈에 피할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저 숨을 방공호로 생각했던 할렐루야 나잇은 매년 힘을 더해 갔습니다. 이제는 피난처가 되어줄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이유와 사탄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맡겨 줄 수 있는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매일 매일 무엇에 젖어들고 있는지 인지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딱히 무엇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의 선택하기 전에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아이의 청치기로 나를 부르셨을 뿐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조금만 더 자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10월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채은영 집사

이번 할렐루야 나잇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감사와 기쁨이 있었지만,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며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반 한 학생의 할렐루야 나잇과 할로윈을 향한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곧바로 할로윈이 있을 주일 예배 때, 교회학교 사역자님의 주일학교 설교에서 “애들아 우리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나잇을 할로윈데이 대신 할겨야. 다우니는 30일 벨리는 11월 1일 금요일에 할겨란다. 우리가 할로윈데이 당일 날 모임이 없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트릭을 트릿을 가면 안되란다. 할로윈과 트릭올 트릿 자체가 귀신들의 장난이고 영적싸움이야, 만약 너희들이 할로윈 저녁 밖으로 트릭올 트릿을 가고 그 다음날 교회에 할렐루야 나잇을 참석한다 해도 나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정직해 지기로 하자...”라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뒤에 앉아 말씀을 들던 저의 마음속에, ‘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영적 전쟁을 과연 이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다 보면 언젠가는 영적 세계를 이해 할 수 있겠지!’ 하며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도사님들과 많은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의 도움으로 할렐루야 나잇을 잘 마친 후 뒷정리를 하는데, 한 학부모님께서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어제 할로윈 저녁에 “너 트릭올 트릿 갈래?” 하고 물었더니 “전도사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서 가면 안돼요” 하고 말 하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미 커스툼도 다 샀잖아! 그러니까 그냥 갈래?” 하고 다시 물었더니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절대로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 4학년 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도 이런 것들이 모두 영적전쟁이라는 것을 어렵듯이라도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냥 마냥 어린 아이들이인 것 같아서, ‘전도사님의 이런 설교 말씀을 다 이해는 하는걸까?’ 걱정도 되고,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들이 모두 재미로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압적으로 느끼지는 않을까?’ 했던 것이 나의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이해하며, 전도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번 할렐루야 나잇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 그 현장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제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김경원 교사



■ 관노칼럼 / 힉스 입자, 하나님 입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브리서 11:3)

49년전에 시험을 치른 학생이 이제서야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급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영국인 이론물리학자 피터 힉스(1929~)박사의 이야기다. 그는 35세 때인 1964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기분이 되는 ‘표준모델’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입자, 즉 우주탄생의 순간 만물에 질량을 부여했던 입자의 존재를 예측한 논문을 발표했다.

세상 만물의 기분이 무엇일까? 분석적이었던 그리스 철학자들은 물질의 기본요소를 작은 알갱이(입자)라고 생각했다. 큰 덩어리를 쪼개고 쪼개다 보면 마지막 알갱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알갱이를 atom(원자)라고 이름 붙였다. 이와 달리 직관적인 중국인들은 만물의 기원이 음양의 기, 즉 에너지라고 말했다. 2천년이 지난 오늘날 양자물리학자들이 물질은 알갱이(입자)와 파동(에너지)의 이중적 성질로 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니 당시 동서양인들의 예지가 얼마나 놀라운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는 1950년대 이래 입자들의 존재와 성질을 추적하기 위해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지하 100미터에 길이 27킬로미터의 타원형 터널을 만들어 놓고 대형 강입자 충돌기(LHC)를 설치해 입자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원리는 이렇다. 양성자와 같은 소립자를 터널 양방향으로 쏘아 최대한 속도로 가속시킨 뒤 충돌시키면 파편들이 부서져 튀어 나오는데 그 파편들을 검출기로 찍어 새로운 입자를 연구하는 것이다.

CERN에서 표준모델의 마지막 입자, 만물에 질량을 부여하는 17번째 입자의 존재를 찾았다고 발표한 것이 급년 여름이었다. 이 입자를 일반적으로 ‘힉스입자’ (Higgs Particle)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이 한국계 물리학자 고 이휘소 박사라니 흥미롭다. 힉스입자라는 이름 외에 ‘신의 입자’ (God Particle)라고도 부르는데 첨단 물리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에 창조주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니 좀 기특하다!

하여튼 이 발견으로 급년 84세 피터 힉스 박사는 생전에 노벨상을 받았으니 영광이지만, 이 힉스입자가 만물의 표준모델이라거나, 신의 입자를 발견했다는 것은 과장이다. 아직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전체 우주의 고작 4퍼센트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양자물리학이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2가지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때로는 눈에 보이는 알갱이로 나타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아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실제(reality)가 따로 있으며, 입자와 에너지와 정신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

물질을 파고 들어 갈수록 어떤 존재의 희미한 그림자가 느껴진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던 과학과 영성이 이제 동전이 양면처럼 하나로 다가오는 것이다.

만물의 기본입자는 무엇인가? 사도바울은 2천년 전에 이미 그 정답을 성경에 적어 놓고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로마서1:20)

만물의 표준모델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기본성분은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다. | 조용대 장로 |

■ 문학과 삶 / 떠남으로 열리는 새로운 세계

때가 차면 남김없이 벗을 줄 아는 겨울 나무는 슬퍼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두고온 고향은 이 발가벗은 겨울 나무에 밤새 함박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입니다.

어김없이 가슴이 그리움에 휘청거리게하는 “고향의 노래”를 나지막히 불러봅니다. 하얗게 무서리 내린 겨울 뜨락에 내려서는 상상을 해보면 “아, 이제는 손모아 눈을 감으라. 고향집 싸리울엔 함박눈이 쌓이네...”

살며시 마음의 커튼을 들어올리고 이어지는 노래글을 뜨거운 커피잔에 밀어넣고 함께 마셔봅니다.

“달 가고 해 가면 별은 멀어도...”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력을 떼어 내는 12월이 무엇을 재촉하듯이 우리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남으로 열리는 새로운 세계는 항상 설레임으로 우리를 기다리지 않던가요?

여섯달전 30년 샌프란시스코를 떠났을때 로스앤젤레스의 새 세계가 우리를 만겼듯이...

주안에교회와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렸듯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아! 아직도 가슴이 벅차 목이 메이는 감사 없이는 부르지 못하는 찬양입니다.

나는 이해인 시인처럼 내 목숨을 이어가는 너무 고운 하늘을 가득품고 새로이 열리는 해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슴같은 눈으로, 나를 깊이 들여다 보는 은총의 겨울을 기도드리며...

어물어물 지나다보니 어찌하다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짧게 되어버린 인생의 내리막 길에 서서, 그러나 한걸음 한걸음이 넘치는 은혜의 바다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겨울나무이어도 좋겠습니다! 한평생 세상에서 걸치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조금은 자랑스럽게 입어보았던 힘겨운 옷가지를 다 떨쳐내고 이제 맨몸으로 바람을 맞으면 그때에야 나는 하늘의 호흡을 시작할 테니까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는 해를 기다립니다.

“겨울나무”

이해인

내 목숨 이어가는
참 고운 하늘을
먹었습니다

눈감아도 트여오는
백설의 겨울 산길
깊숙이 묻어둔
사랑의 불씨

감사하고 있습니다
살아온 날
살아갈 날
넘치는 은혜의 바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
오는 세월
기도하며 지새운 밤

종소리 안으로
밝아오는 새벽이면
영원을 보는 마음

해를 기다립니다
내목숨 이어가는
너무 고운
하늘을 먹었습니다



서미숙 기자

주안에 만남을 다녀와서...

예기치 않았던 미국행, 하나님의 섭리

10월 27일 주안에 만남을 다녀왔습니다. 새신자 교육시간에 담임목사님과 저녁 식사하는 자리니 참석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간단한 저녁다과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안에교회 첫 예배를 참



박지현 성도

석했던 날, 그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 멋스럽게 장식된 테이블 위 꽃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건 바로 빨간 나비 넥타이에 서빙복을 갖춰 입고 등장하신 장로님들의 심상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동안 교회에서 눈인사만 했던 분들이 교회 사역자들이신 것을 소개받았고, 낯선 사람들과의 어색한 만남에서 장로님들께서는 음악에 맞춰 멋지게 율동을 하시는 이벤트를 통해 센스있게 분위기를 띄워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던 성도들이 주안에교회 새 가족이 되기까지의 은혜로운 간증들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도 이미 기적을 이루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병원의 의과대학 교수직에 사표를 던졌을 때 주위사람들은 평생 안정된 생활을 박차고 나가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물었지만 그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을 뿐이라는 막연한 말만 되풀이할 뿐 저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안에교회 첫 예배를 통해 저 자신도 알 수 없었던 갑작스런 병원사직과 온 가족의 예기치 않았던 미국행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삶의 목표가 없이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자 미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수목자가 되기를 20년동안 기도하셨던 목사님의 중보기도,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권사님이신 시어머님과 목사님이신 시동생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기도의 응답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과학자임을 자부하며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인 저의 남편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안에교회와의 첫 만남을 통해 강력하게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매주 주일예배를 빨리 가자고 재촉하게 된 남편, 어린이 예배에 가서 수준에 맞게 예배드리라고 해도 최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일예배 드리겠다는 9살 딸 예빈이, 자갈밭처럼 씨를 뿌려도 말씀이 자라지 않던 저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갈급함을 주시고 제가 알지 못했던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습니다.

주안에교회 첫 예배를 통해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해 상한 목자 심정을 주셨고, 경제적으로만 안정됐을 뿐 영적 소망이 없는 한국인 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제게 심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다, 다시 듣고 싶다고 휴대폰으로 녹음하다 저를 당황시켰던 딸 예빈이,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부터 다음 세대까지 선교비전을 말씀하시던 담임 목사님의 목회비전을 열렬히 지지하게 된 남편, 한국에 돌아가면 산모보다 먼저 신생아를 만나게 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이 아이들을 안고 기도해 줄 것을 꿈꾸게 된 저 자신, 저희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변화들은 2달 전 한국을 떠나올 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 취임예배 답사

기도와 섬김으로
충성하는 직분자

먼저 이와같이 영광스런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섭리가운데 세계비전교회와 주안에교회를 합병하게 하시고, 새로이 주안에교회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어색한 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서로 양보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저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희들을 시무 장로, 시무 권사, 시무 안수집사로 부르신다고 믿고, 부족한 모든 부분들은 성령님이 도우실 것으로 확신하며 겸손히 취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직분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직분자로,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충성하는 직분자로,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도 돕는 직분자로, 넓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주안에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직분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직분자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높이 들고 나가는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모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더 큰 사역을 이루어가는 주안에교회와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에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 정도영 장로 |



#1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 찬송가(통) 405장

지난달 첫 회에 부분적으로 소개한 곡입니다. 뉴튼은 영국 런던에서 지중해에서 무역선 선장을 하는 아버지와 신앙이 독실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6세에 어머니가 별세하고 8세에서 10세까지 학교에 다닌 후 아버지를 따라 선원생활을 하는 동안 선원들의 나쁜 생활에 물이 들어 타락하고 포악해져서 온갖 죄를 다 짓게 됩니다. 그 후 해군에 입대하여 탈영했으나 다시 불잡히게 되어 노예로 팔립니다. 백인 노예상 주인의 흑인 아내의 노예가 되어 ‘노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흑인 여주인이 뉴튼에게 음식을 던져주면 뉴튼은 개처럼 받아먹었을 정도로 그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밤에 나가 고구마나 감자를 캐어 먹으며 몸에는 누더기 셔츠 한장을 달랑 걸치고 지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친구의 도움으로 그는 노예생활을 청산하고 노예를 사고파는 함선의 선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1748년 5월 그가 22세일 때 뉴튼의 함선이 거친 풍랑을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집니다. 이 때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닥치자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굴복한 것입니다. 배는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났으며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그는 이 날을 제 2의 탄생일로 정하고 점차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으로 변해 갔습니다. ‘1755년 30세 때 뉴튼은 병을 이유로 노예선장 생활을 청산하고 면화에 매진하여 42세에 ‘올니(Olney)’ 지역의 성공회 사제가 되어 15년간 사역하게 됩니다. 1773년 신년 첫 예배를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던 중 역대상 17장 16절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란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타락한 죄인이었던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 번 감격하며 한절 한절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시를 지어 내려가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 시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입니다. 뉴튼은 유명한 시인 윌리엄 쿠퍼와 함께 ‘올니 찬송가’를 출판하여 “Amazing grace” “시온성

과 같은 교회” 등 많은 찬송시를 실어서 유명한 찬송가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찬송가 작시 외에도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집이 Banner of Truth 출판사에서 “The works of John Newton” 1권에서 6권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뉴튼의 생애를 정리하며 성 어거스틴(354-430)의 생애가 떠올랐습니다. 그 또한 18세 때부터 타락과 방탕으로 방황하며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회심한 후 기독교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처럼 뉴튼도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삶이 자신이 쓴 Amazing grace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알알이 베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를 찬양할 때 뉴튼의 회개와 감사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며들어 더욱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세건 기자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p>세리토스채플/ 오전 8:00, 10:00</p> <p>밸리채플/ 오전 10:00, 11:45</p>	
영성 집회	<p>목요영성집회/ 저녁 7:45 다운니채플</p> <p>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p>	
새벽 예배	<p>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p> <p>다운니채플/ 새벽 5:30 비전채플</p>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다운니채플 10629 N. Lakewood Blvd., Downey CA 90241

비전채플 8531 E. Florence Ave. Suite #100, Downey, CA 90241

세리토스채플 11751 Alondra Blvd., Norwalk, CA 90650